

생성형 AI 기반 대학 초급 중국어 독해 수업의 학습자 경험과 교육적 의미에 관한 질적 연구

임연정*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1) 스키마 이론과 초급 중국어 독해
 - 2) 생성형 AI와 중국어교육
 - 3) 비판적 AI 리터러시와 정보 검증
3.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수업 및 연구 참여자
 - 2) 자료수집 및 분석
4. 연구결과
 - 1) 인지적 비계를 통한 언어 및 내용 스키마 활성화
 - 2) 학습자 주도 AI 탐구 및 동료 학습
 - 3) AI 정보 검증 과정 및 교수자 역할
 - 4) 독해 수업에 대한 인식 변화 및 학습자 요구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학 교양 초급 중국어 독해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의 경험을 분석하고, 그 교육적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강생 7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자료를 주제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수자가 검토한 AI 기반 예문과 문법 자료는 학습자의 언어적 부담을 낮추고 언어 스키마 형성을 지원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문화 탐구와 발표 활동은 내용 스키마를 형성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조교수

화하고, 프롬프트 조정과 동료 발표 공유를 통해 AI 활용 전략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습자들은 AI 정보의 오류를 경험하며 출처 확인과 교차 검증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중국어 표현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교수자의 검토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수업 경험은 중국어 독해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후속 학습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는 생성형 AI 활용 수업에서 교수자 비계, 학습자 주도 탐구, 정보 검증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키워드: 생성형 AI, 초급 중국어 독해, 스키마, 교수자 비계, 학습자 주도 탐구, AI 리터러시

1. 서론

최근 교육 현장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어 교육에서 생성형 AI는 학습자의 수준 및 요구에 적합한 설명과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인지적 부담을 완화하고 개별화된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잠재력은 한자·어휘·문형의 언어적 이해와 지문 내 사회문화적 맥락 파악이 동시에 요구되는 중국어 독해 교육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특히 초급 수준의 학습자는 제한된 언어 능력과 배경지식으로 인해 독해 과정 중에 과도한 인지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이를 텍스트의 언어 및 문화적 정보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수·학습 설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설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AI는 학습자 수준에 맞는 예문과 문법 설명을 제공하고 관련 문화 정보의 탐색을 지원함으로써, 초급 학습자의 독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능동적인 의미 구성을 촉진하는 인지적 비계(scaffolding)로 활용될 수 있다.¹⁾

1) 비계란 학습자가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수행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점차 조정 및 축소되는 교수적 지원을 의미한다(Wood et al., 1976, pp. 90, 96).

하지만 초급 단계의 중국어 학습자는 언어·문화적 배경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지닌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현상이나 부정확하고 왜곡된 중국어 표현, 신뢰하기 어려운 문화 정보를 독립적으로 판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생성형 AI를 수업에 도입할 때는 단순한 기능적 활용을 넘어 학습자가 AI 산출물을 의심하고 교차 검증하는 비판적 AI 리터러시의 함양 과정, 그리고 이를 견인하는 교수자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교수자 중심 및 학습자 주도의 AI 활용을 대학 교양 초급 중국어 독해 수업에 결합하고, 그 교육적 의미를 학습자의 관점에서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어 독해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수업 지원 요구를 고찰하여 향후 교수·학습 설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스키마 이론과 초급 중국어 독해

외국어 독해는 단어를 순차적으로 해독하는 과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스키마 이론(Schema Theory)에 따르면 스키마는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조직하는 데 작용하는 지식 구조이며, 읽기는 텍스트 정보와 독자의 기존 인지 구조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Rumelhart, 1980, pp. 33-34). 독자는 텍스트에 제시된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 동시에 자신이 지닌 배경지식과 문화적 경험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이와 관련해 王輝(2004)는 전통적인 대외한어 독해 수업이 단어와 문장 해석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학습자의 능동적 의미 구성 능력을 배양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pp. 66-67).

스키마 이론에서는 독해에 관여하는 배경지식을 언어 스키마(Linguistic Schema), 내용 스키마(Content Schema), 형식 스키마(Formal Schema)로 구분한다. 언어 스키마는 어휘·문법·문형 등 언어 체계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며,

내용 스키마는 텍스트의 주제, 사회문화적 배경, 상황 맥락 등에 관한 지식을 가리킨다. 형식 스키마는 텍스트 구조와 담화 전개 방식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초급 독해 자료는 단문 또는 비교적 짧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장르별 텍스트 구조나 복합적인 담화 전개 양상이 뚜렷하지 않았다. 이에 형식 스키마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연구 대상 자료와 수업 수준의 특성을 고려하여 언어 스키마와 내용 스키마를 중심으로 설계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언어 스키마는 초급 중국어 독해의 기초적 토대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초급 학습자는 한자·어휘·문형·문법 지식이 견고하게 갖추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단어와 문장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부담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Eskey(1988)는 학습자의 언어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하위 수준의 해독에 과도한 인지 자원을 사용하게 되고, 그 결과 상위 수준의 의미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p. 94).

내용 스키마 역시 외국어 독해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외국어 학습자는 언어적으로 문장을 해석할 수 있더라도, 텍스트가 전제하는 문화적 관습이나 사회적 맥락을 알지 못하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Carrell & Eisterhold(1983)는 외국어 독해에서 문화적 배경지식의 차이가 독해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pp. 556-557), 戴雪梅(2003)도 중국어 학습자가 언어 지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독해에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로 문화적 공백을 제시하였다(pp. 50-51).

언어 스키마와 내용 스키마는 독해 과정 중에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한다. 학습자는 어휘와 문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장을 해독하고, 문화적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텍스트의 상황과 표현 의도를 맥락화한다. 따라서 초급 중국어 독해 수업에서도 핵심 어휘와 문형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문과 관련된 문화적 배경을 독해 과정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

2) 생성형 AI와 중국어교육

최근 교육 현장에 도입된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반의 생성형 AI는 학습자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복잡한 개념의 이해를 돕고, 맞춤형 튜터(Tutor)로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Baidoo-Anu & Owusu Ansah, 2023, p. 52). 이러한 특성은 외국어 학습에서 수준별 예문 제시, 문법 설명, 번역, 오류 수정, 문화 정보 탐색, 발표 자료 구성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지닌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산출물이 항상 정확하거나 교육적으로 적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성형 AI는 학습을 대체하는 도구라기보다 교수자의 설계와 학습자의 비판적 사용을 전제로 할 때 교육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중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AI를 교수·학습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기계 번역의 오류 분석과 포스트 에디팅 교육, 어학용 챗봇 및 HSK 학습 플랫폼 개발, AI 기반 맞춤형 학습과 발음 교정의 가능성이 검토되었으며(이아형, 2023; 이지원, 2024; 고권태, 2022; 이서이·한용수, 2023), 최근에는 ChatGPT를 활용한 어휘·문장 생성, 문학작품 번역, 수능 중국어 문제 풀이, HSK 쓰기 교육을 위한 프롬프트 설계 등 생성형 AI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진준화, 2023; 권아린, 2024; 조은경·진화진, 2024; 김선아, 2025).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중국어 교육에서 AI 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가 개념 소개나 프롬프트 실험, 특정 언어 기능 중심의 제안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다(권아린, 2024, p. 279). 특히 실제 교실 현장에서 학습자가 AI 기반 자료와 활동을 어떻게 경험하고, AI 산출물의 오류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검증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이지원, 2024, p. 173; 조은경·진화진, 2024, pp. 118-119). 따라서 연구를 통해 초급 중국어 독해 수업에서 교수자의 설계·검토와 학습자의 AI 활용이 실제로 어떻게 결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비판적 AI 리터러시와 정보 검증

생성형 AI가 교육 현장에 확산되면서 AI 리터러시는 중요한 교육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Long & Magerko(2020)는 AI 리터러시를 개인이 AI 기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AI와 효과적으로 소통·협업하며, 다양한 맥락에서 이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다(p. 2). 대학 교육에서도 AI 도구와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이해, 프롬프트 작성, AI 산출물의 비판적 평가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이은선·진은진, 2026, pp. 49-52), 비판적 사고, 메타인지, 자기주도성, 윤리의식과의 연계도 강조되고 있다(최숙영, 2024, pp. 23-24).

외국어 학습에서 AI 리터러시는 프롬프트 작성, 정보 탐색, 산출물 검증, 학습 목적에 맞는 재구성 능력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학습자는 자신의 수준과 목적에 맞게 조건을 제시하고, AI 산출물을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언어적·문화적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능력은 자율적 사용만으로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수업 안에서 AI 활용 방법에 대한 안내와 피드백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최진실, 2025, pp. 128, 133).

중국어 독해 수업에서 정보 검증은 더욱 중요하다. 초급 학습자는 어휘·문형·문화적 배경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AI가 제시한 중국어 표현의 자연스러움과 문화 정보 및 출처의 신뢰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부정확한 문화 정보는 내용 스키마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생성형 AI 기반 초급 중국어 독해 수업에서는 언어 및 내용 스키마의 구축·활성화와 함께 AI 산출물에 대한 검증 및 교수자의 안내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생성형 AI 기반 초급 중국어 독해 수업에서 언어 및 내용 스키마의 구축·활성화, AI 산출물의 검증, 교수자 지원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수업 및 연구 참여자

① 연구 대상 수업

본 연구는 2026학년도 1학기 단국대학교 교양 교육과정에 개설된 초급 중국어 독해 수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수업은 주당 3시간, 3학점으로 운영되었으며 전체 수강생은 18명이었다. 수강생 대부분은 중국어를 처음 배우거나 중·고등학교에서 1년 정도 학습한 경험이 있는 초급 학습자였으며, 학년과 전공도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본 수업은 스키마 이론과 생성형 AI를 결합한 초급 중국어 독해 수업 설계(임연정, 2026)를 적용한 것이다. 학습자의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언어적 이해와 문화적 맥락 이해를 함께 지원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생성형 AI는 학습을 대행하는 도구가 아니라 교수자의 자료 개발과 학습자의 문화 탐구를 지원하는 보조 도구로 활용하였다. 전체 수업은 독해 전 언어 학습, 본문 독해, 문화 탐구 및 발표의 단계로 구성되었다.

독해 전 단계에서 교수자는 ChatGPT와 Gemini를 병행하여 매주 독해 지문과 관련된 핵심 어휘와 주요 문형, 문법 설명, 보충 예문을 생성하였다. 이때 초급 학습자의 언어적 부담을 고려하여 독해 지문보다 낮은 난이도의 어휘와 문형을 사용하고, 짧고 명확한 문장과 실생활 맥락을 중심으로 예문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생성된 자료는 중국어 표현의 정확성과 자연스러움, 학습자 수준에 따른 난이도 등을 검토한 뒤 수정·재구성하였다. 또한 중국어 예문과 함께 한어병음과 한국어 해석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본문을 읽기 전에 새로운 어휘와 문형의 의미와 용법을 미리 학습하도록 하였다.

본문 독해 단계에서는 앞서 학습한 어휘와 문형을 바탕으로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별 단어의 뜻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휘와 문형이 문장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지문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함께

다루었다. 교수자는 중국어 문장을 의미 단위로 설명하고, 학습자가 배경지식과 문맥을 활용하여 지문의 의미를 구성하도록 지원하였다. 이 단계의 핵심은 생성형 AI의 직접적인 활용보다는 앞서 형성한 언어 및 내용 스키마를 실제 독해 과정과 연결하는 것이다.

문화 탐구와 발표 활동은 독해 지문과 연계하여 이루어졌다. 학습자는 수업 전에 중국의 명절·음식·음주·결혼 문화 등 관련 주제를 생성형 AI로 탐색하고 발표 내용을 구성한 뒤, 독해 활동 후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AI가 제시한 정보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고 웹 자료나 다른 AI 도구의 응답과 비교·확인한 뒤 발표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발표 과정에서 활용한 AI 도구와 프롬프트, 유용했던 정보, 추가로 확인한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동료의 AI 활용 방식과 문화 탐구 과정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였다.

본 수업에서는 AI 정보의 오류 가능성과 검증 과정도 함께 다루었다. 교수자는 역할·대상·목적·구체화한 프롬프트 작성 사례와 AI가 제시한 정보와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을 수업 중에 공유하였다. 학습자는 이를 바탕으로 AI 산출물을 복수의 자료 및 교수자 피드백과 비교·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처럼 본 수업은 교수자가 검토한 AI 기반 중국어 자료와 학습자 주도의 중국 문화 탐구를 연계하고, 수업 전 과정에 정보 검증 활동을 포함하여 운영하였다. 주요 운영 방식은 <표 1>과 같다.

〈표 1〉 생성형 AI 기반 초급 중국어 독해 수업 운영 방식

단계	활동 주체	주요 활동	생성형 AI 활용	교육적 기능
독해 전	교수자	핵심 어휘·문형·예문 제공	예문과 설명 생성 후 검토·수정	언어 스키마 구축 및 독해 부담 완화
독해 중	교수자·학습자	본문 읽기, 끊어 읽기, 문장 구조와 문화 맥락 이해	교수자가 검토한 AI 기반 자료의 보조적 활용	언어 및 내용 스키마 활성화
독해 후	학습자	문화 정보 탐색, 발표 내용 구성	정보 탐색·비교·선별·재구성	내용 스키마 확장 및 주도적 탐구
발표 및 공유	학습자·동료	문화 발표, 도구와 프롬프트 공유	AI 활용 과정과 결과 공유	동료 학습 및 AI 활용 전략 확장
전 과정	교수자·학습자	프롬프트 작성과 정보 검증	출처 확인 및 복수 자료 대조	비판적 AI 활용과 오류 조정

②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 대상 수업의 전체 수강생 18명 중 7명이다. 연구 참여자는 수업 성취 수준을 고려하여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하였다. 중간고사 성취 결과를 기준으로 상·중·하 수준을 구분한 후, 각 수준에서 학습 경험을 살펴볼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여 상위권 2명, 중위권 3명, 하위권 2명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실시된 기말고사에서도 참여자들의 성취 수준 분류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러한 표집은 서로 다른 성취 수준의 학습자가 수업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폭넓게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또한 특정 전공계열에 편중되지 않도록 인문계열·자율전공계열·예술계열·자연계열·보건계열·체육계열 등 다양한 전공 배경의 학습자를 포함하였다. 참여자 정보는 연구윤리를 고려하여 익명화하였으며, 성취 수준에 따라 H, M, L의 기호를 부여하였다. 연구 참여자 정보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 정보

참여자	성취 수준	학년	성별	전공계열
H1	상위권	2학년	여	인문계열
H2	상위권	1학년	여	자율전공계열

M1	중위권	4학년	여	예술계열
M2	중위권	1학년	남	자연계열
M3	중위권	1학년	여	보건계열
L1	하위권	2학년	남	체육계열
L2	하위권	3학년	여	예술계열

2) 자료수집 및 분석

①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반구조화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반구조화 심층면담은 연구자가 사전에 구성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하되, 참여자의 응답 내용에 따라 추가 질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면담 질문은 연구 목적과 수업 설계의 주요 요소를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주요 영역별 대표 질문과 탐색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영역별 대표 질문 및 탐색 내용

영역	대표 면담 질문	탐색 내용
수업 전 인식 및 수업 전반	- 수업 전 중국어 독해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가? - AI 활용 중국어 독해 수업에서 기존 중국어 수업과 비교해 가장 기억에 남은 점은 무엇인가?	독해에 대한 사전 인식과 어려움, 수업에 대한 인상, 기존 중국어 수업과의 차이
문화 스키마 경험	중국 문화 관련 내용을 학습한 경험이 중국어 독해 지문을 읽는 방식이나 이해 과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문화 배경지식의 활용, 맥락 이해와 예측·추론 경험, 독해 부담감과 자신감의 변화
교수자 중심 AI 활용 경험	- 교수자가 AI를 활용해 가공한 어휘·예문·문법 자료는 독해 학습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 교수자가 AI 자료를 검토·수정하여 제공한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료의 이해 용이성 및 실제 독해에서의 활용 경험, 기존 교재와의 차이, 교수자의 검토·수정에 대한 의견
학습자 중심 AI 활용 및 발표 경험	- 직접 AI를 활용해 문화 관련 발표를 준비·발표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 다른 학습자의 발표와 AI 활용 과정을 공유하면서 어떤 점이 인상 깊었는가?	AI 활용 방식과 어려움, 문화 탐구 및 발표 경험, 동료의 AI 활용 방식 공유, 개인 학습에의 적용 가능성
AI 정보 검증 및 종합 인식	- AI가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거나 검증한 경험은 어떠했는가? - 수업 경험 이후 중국어 학습·중국 문화·AI 활용에 대한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정보 확인 방법과 어려움, 교수자 피드백, AI 활용 시 주의점, 수업 후 인식 변화와 개선 요구

면담은 학기 말인 2026년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연구실 및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간 1:1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1인당 면담 시간은 약 40~50분이었다. 연구자는 해당 교과목의 담당 교수자이자 면담자로서 연구에 참여하였다. 면담 전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면담 자료의 활용 범위를 설명하였다. 또한 면담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참여자의 이름과 개인 식별 정보는 익명화된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녹음은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실시하였으며, 면담 참여 여부와 답변 내용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면담 종료 후 녹음 자료를 전체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② 자료분석

본 연구는 Braun과 Clarke(2006)의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참고하여 면담 전사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제분석은 질적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 패턴을 확인하고 이를 코드와 주제로 조직하여 연구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 활용 중국어 독해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참여자의 진술에 나타난 의미를 단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목적과 반구조화 면담 영역을 바탕으로 문화적 배경지식과 내용 스키마, 교수자 중심 AI 활용, 학습자 주도 AI 활용 및 발표, AI 정보 검증, 교수자 역할, 독해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원 요구를 잠정적 분석 범주로 설정하였다. 이후 전체 전사자료에서 의미 있는 문장과 표현을 의미 단위로 추출하고, 잠정 범주를 참고하되 자료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의미를 개방적으로 코딩하였다. 이때 참여자의 표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진술의 핵심 의미를 드러내는 코드명을 부여하였다.

생성된 코드는 유사성에 따라 하위범주로 묶고, 하위범주 간의 관계를 검토하여 상위 주제로 통합하였다. 그 결과 ① 인지적 비계를 통한 언어 및 내용 스키마 활성화, ② 학습자 주도 AI 탐구 및 동료 학습, ③ AI 정보 검증 과

정 및 교수자 역할, ④ 독해 수업에 대한 인식 변화 및 학습자 요구 등의 네 가지 상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사자료, 코드, 하위범주, 상위 주제를 반복적으로 대조하고, 대표 발화와 연구자의 해석이 일치하는지 재확인하였다. 또한 범주의 의미가 중복되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원자료로 돌아가 코드와 범주를 조정하였다. 전체 참여자의 진술을 검토한 후, 각 주제의 공통적 경험과 참여자 간 차이를 드러내는 발화를 중심으로 제4장 연구결과에 제시하였다.

4. 연구결과

1) 인지적 비계를 통한 언어 및 내용 스키마 활성화

① 맞춤형 AI 중국어 자료를 통한 언어 스키마 구축

교수자가 생성형 AI를 학습자 수준에 맞춰 조정한 어휘 예문과 문법 설명 자료는 지문을 독해하기 전에 언어적 토대를 마련하는 비계이자 단계적 학습을 돕는 중간 단계로 인식되었다.

“교재보다는 문장이 짧아서 좀 더 한눈에 보기 쉬웠어요. 단계를 밟아서 가는 느낌이 있어서 보충 자료를 먼저 보고, 좀 더 어려운 교재를 보면서 추가로 학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H2)

“이번에 공부할 때 보충 자료를 많이 봤어요. 교재 예문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보충 자료는 이해가 잘됐던 것 같아요. 문장이 짧은 편이라서 통째로 외우면 어휘랑 문법 공부도 되는 것 같았어요.” (M1)

이러한 발화는 맞춤형 예문이 개별 어휘의 뜻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휘와 문법이 문장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함께 익히게 했음을 보여준

다. 짧고 명확한 예문은 교재 지문으로 바로 진입하기 어려운 학습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게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난이도가 분석이 잘 안됐는데, 예문이 있어서 약간 중화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예 바로 심화 과정이 아니라 이해가 빨랐던 것 같아요.” (L2)

다만 아래 M2의 발언처럼 맞춤형 예문의 유용성이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하게 인식된 것은 아니었다. AI 생성 자료에 대한 인식은 개별 학습 경험과 활용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교수님이 주신 자료를 공부하는 게 시험 준비에 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단어가 들어가니까 문장을 봤을 때 공부한 게 생각이 났어요. ...수업 시간에 문장 독해할 때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M2)

결과적으로 교수자가 설계한 맞춤형 AI 예문은 초급 중국어 학습자의 언어 스키마 형성을 지원하고, 독해 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다만 이러한 도움은 주로 어휘·문법 이해와 독해 전 준비 단계에서 확인되었으며, 실제 지문 독해로의 전이는 학습자에 따라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AI 중국어 자료와 본문 독해 활동을 보다 긴밀하게 연계하는 교수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② 문화 배경지식을 통한 맥락 추론과 의미 이해

지문과 관련된 문화 배경지식은 학습자가 개별 어휘를 해독하는 데 머물지 않고, 문맥을 바탕으로 내용을 예측하고 의미를 추론하게 하는 내용 스키마로 작용하였다. 학습자들은 차 문화와 술 문화 등 지문의 배경을 알고 있을 때 문장의 전개 방향을 예상하기 쉬웠다고 진술하였다. 하위권 참여자에게서도 배경지식의 유무가 읽기 경험에 차이를 준다는 인식이 확인되었다.

“단어 해석보다 글의 맥락에 따라서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차 문화나 술 문화를 배우고 문장을 봤을 때 ‘이런 뜻으로 가겠구나’ 하고 예측이 되는 것 같았어요.” (M2)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백지상태로 있는 거랑 그 나라에 대해 조금 알고 다시 읽는 거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L1)

한편 문화 배경지식의 형성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화 탐구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었다. M1은 교재에 제시된 문화 설명을 먼저 읽은 경험이 관련 어휘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교재 뒤쪽에 중국 문화 설명이 한글로 먼저 적혀 있는데, 그걸 한번 읽고 단어를 배우니까 연관 지어서 잘 외워졌어요. 관련 문화와 관련된 단어를 암기하니까 그 단어만 외워도 관련 내용이 같이 생각났어요.” (M1)

또 문화 배경지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표현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처음에 읽고 나서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문화를 알고 나서 문장을 읽으니까 그 표현들이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H2)

이처럼 문화 배경지식의 활용은 특정 성취 수준에 국한된 특성이 아니었다. 성취 수준별로 일부 상이한 반응이 나타났으나, 이를 일관된 수준별 특징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웠다. 중위권 참여자의 발화에서는 문맥 예측과 어휘 추론의 과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타났으며, 상위권 참여자는 문화적 표현의 이해와 기억을, 하위권 참여자는 배경지식의 유무에 따른 읽기 경험의 차이를 언급하였다. 문화 배경지식은 학습자가 단어 단위의 해독을 넘어 지문의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데 활용되었다. 다만 이러한 경험은 생성형 AI 활용뿐 아니라 교재에 제시된 문화 정보 등 수업의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볼 필요가 있다.

2) 학습자 주도 AI 탐구 및 동료 학습

① AI 기반 문화 발표 준비와 주도적 탐구

학습자들은 중국 문화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주제 탐색, 자료 수집, 발표 구성, 대본 작성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정보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표 목적에 맞게 AI에 역할을 부여하거나 청중과 상황을 구체화하고, 여러 도구의 응답을 비교하는 등 질문 방식과 활용 조건을 조정하였다.

“좀 생생한 후기를 알려주는 발표를 하고 싶어서 제미니(Gemini)한테 ‘넌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유학생이야’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했어요. 그러니까 제미니가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중국의 요즘 유행하는 문화들을 알려줬어요.” (M1)

“GPT랑 제미니랑 클로드(Claude)랑 딥시크(DeepSeek)에 다 물어봤어요. 딥시크가 중국 기반이라고 해서 써보고 싶었는데, 혹시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른 것에도 물어보고 비교해 보고 싶었어요.” (H1)

학습자들은 발표자와 청중의 특성을 프롬프트에 제시하여 발표 상황에 맞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제가 누군지 설명하고 어느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거라고 하면, AI가 말투까지 자세히 만들어줘서 대본 짜는 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L1)

또 AI의 응답이 의도한 방향에서 벗어나면, 대화 조건을 다시 설정하거나, 새 대화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조정하기도 하였다.

“발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전에 입력했던 프롬프트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의 대화를 아예 잊어버리도록 설정하고, 프롬프트를 다시 제시한 다음 새 채팅을 만들어서 이어갔어요.” (M1)

이러한 경험은 학습자의 AI 활용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활동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질문 방식과 대화 조건을 조정하며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학습자들은 교수자가 제공한 내용을 따라가는 활동과 달리, AI를 활용한 발표 준비를 통해 직접 자료를 찾고 내용을 구성하면서 주제에 더 깊이 접근할 수 있었다고 인식하였다.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느낌인데, 이걸 제가 직접 찾아보고 관심 있게 파고들어서 확실히 도움이 돼요.” (M3)

“다른 사람 발표를 들을 때는 듣는 정도인데, 제가 할 때는 심층 분석을 하니까 더 기억에 크게 남는 것 같아요.” (L2)

AI 활용 방식은 성취 수준에 따라 일관되게 구분되지 않았다. 일부 상·중위권 참여자는 여러 AI의 응답을 비교하거나 대화 조건을 재설정하였고, 하위권 참여자도 발표 상황과 청중을 구체화하며 주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이는 성취 수준과 상관없이 AI 기반 문화 발표가 학습자의 판단과 조정이 개입된 주도적 탐구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② 발표 공유를 통한 AI 활용 전략 확장

학습자들은 동료 발표를 통해 문화 내용뿐 아니라 AI 도구의 종류, 프롬프트 작성 방식, 추가 질문과 검증 과정 등을 함께 접하였다. 앞 절의 발표 준비가 개인의 주도적 탐구 과정이었다면, 발표 공유는 다른 학습자의 AI 활용 방식을 관찰하고 자신의 전략으로 확장하는 동료 학습의 기회가 되었다.

“제 것만 이용하다 보니까 제 방법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학생들 활용 화면을 보면서 ‘다들 프롬프트를 이렇게 하고 추가 질문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 방법도 한번 해 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L2)

“챗GPT랑 제미니밖에 안 써봤는데, 다른 학생이 NotebookLM을 활용하는 걸 보고 검증도 할 수 있고 논문이나 기사 같은 관련 자료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조금 따라 해봤어요.” (M3)

이는 학습자들이 동료 학생의 발표 결과물뿐만 아니라 원하는 응답을 얻기

위한 질문 구체화 과정과 새로운 AI 도구의 기능적 활용 전략 등에 주목하여 자신의 학습에 적용하고자 시도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발표 공유의 수용 방식은 성취 수준보다 학습자의 기존 AI 활용 경험과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동료의 프롬프트와 AI 도구 활용 방식을 관찰하고 이를 자신의 학습 전략으로 확장하였다.

3) AI 정보 검증 과정 및 교수자 역할

① AI 정보의 교차 검증과 비판적 활용

문화 발표 준비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AI 정보의 오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다른 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하였다. 다만 수업 이전의 AI 활용 경험에 따라 검증 양상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AI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 특히 AI가 사실에 일부 내용을 덧붙여 그럴듯하게 구성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하고 발표 주제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를 제시하는 문제를 직접 경험하기도 하였다.

“제가 느끼기에는 AI가 없는 것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 내는 것보다, 뭔가 조금 있는 걸 기반으로 그럴싸하게 추가적으로 꾸며내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제일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M3)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 제미니가 이미 한 번 틀린 모습을 딱 보니까, 좀 더 검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H2)

검증은 AI가 제시한 출처를 직접 확인하거나 영어 원문과 여러 사이트를 대조하고, 포털·뉴스 기사·다른 AI 도구에서 내용을 다시 검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검증은 단순한 주의 사항에 머무르지 않고, 발표 자료를 완성하기 위해 실제로 수행된 학습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I가 제시해 주는 출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일단 다 눌러서 확인해

보고, 영어 원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읽어봤어요. 그리고 애가 꾸며낸 게 아니라 진짜 있는 내용인지 여러 사이트에서 검색해 봤던 것 같아요.” (H2)

“발표 내용을 먼저 물어보고 어느 정도 제시해 주면, 그 내용을 다시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봤어요. 개인 블로그는 잘 안 보고 뉴스나 전문적인 자료를 확인했던 것 같아요.” (M1)

한편 M2는 수업 이전부터 과제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복수의 AI와 출처를 대조하는 방식에 익숙했다고 진술했다.

“출처를 밝히고, 다른 AI가 쓴 걸 또 다른 AI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크로스체킹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익숙한 과정이에요.” (M2)

따라서 M2가 수업을 통해 새로운 검증 방법을 형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동료 학생의 발표 및 발표 자료를 보면서 기존의 검증 기준을 다른 학습자가 전달하는 정보에도 적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학생들이 발표할 때 쇼츠 같은 거나 AI 목소리가 나는 영상들을 보여줬는데, 내용은 맞는 것 같긴 해도 좀 더 검증된 자료를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자료가 되잖아요.” (M2)

이처럼 학습자들은 AI 정보를 재검색하고 대조하는 과정을 정확한 정보 획득을 위한 필수 절차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자료 탐색 능력과 기존 AI 활용 경험에 따라 하위권 참여자가 체감하는 반복 검색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는 성취 수준뿐 아니라 기존의 AI 활용 경험과 자료 탐색 능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번 더 물어보고, 그게 또 있는 건지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봐야 하니까요. 처음에 직접 제가 자료를 찾았으면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걸 다시 봐야 되는 거라서 좀 귀찮았어요.” (L1)

결과적으로 학습자들은 AI의 오류를 경험한 이후 출처와 복수 자료를 대조

하며, AI 산출물을 검토와 선별이 필요한 정보로 인식하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AI 산출물을 학습 목적에 맞게 비판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로 이어졌다. 다만 이를 모든 학습자의 검증 능력 향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향후 연구를 통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② 교수자의 검토와 AI 활용 과정의 시범

학습자들은 AI 정보의 검증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초급 중국어 수준에서 언어적 오류를 스스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문화 정보는 한국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중국어 표현의 정확성이나 번역의 적절성, 문장의 자연스러움은 학습자가 직접 판별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교수자가 AI 산출물을 검토·수정하여 제공한 자료를 보다 신뢰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학생들이 직접 중국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챗GPT나 제미니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교수님께서 오류도 잡아내시고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제시해 준 자료니까 신뢰도가 확 올라가요.” (H2)
 “제가 혼자서 AI한테 답변을 받았을 때 틀린 부분을 솔직히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게 낫다...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정보가 더 믿음이죠.” (M3)

결과적으로 교수자의 직접적인 자료 검토는 초급 학습자가 직면하는 언어적 한계를 보완하고, AI 산출물을 유의미한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시사한다.

한편 교수자가 AI를 활용한 최종 산출물만 제공하지 않고, 수업 중에 채팅 기록 등을 통해 프롬프트 작성과 수정 과정을 공유한 것은 학습자가 AI 활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는 교수자의 역할이 AI 산출물의 오류를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적절한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나는 누구고 어떤 대상한테 뭘 할 거고’ 이렇게 하는 법을 잘 몰랐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걸 보고 저렇게도 쓸 수 있구나 했어요. (그러면) 더 길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L1)

교수자의 지원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참여자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일부 중위권 및 상위권 참여자는 교수자가 검토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주목한 반면, L1은 교수자의 프롬프트 작성 방식을 자신의 활용 전략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성취 수준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학습자가 교수자의 지원을 필요에 따라 주체적으로 수용한 방식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교수자의 지원은 단순한 학습 자료 제공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프롬프트 작성 방식과 AI 정보의 검증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독해 수업에 대한 인식 변화 및 학습자 요구

① 독해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자발적 학습 확장

AI 활용과 문화 탐구가 결합된 독해 수업은 중국어 독해 및 중국 문화에 관한 심리적 거리감을 낮추고, 흥미와 호기심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H1은 문화 내용이 독해 이해를 결정적으로 바꾸었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지문을 계속 읽도록 하는 흥미가 높아졌다고 발언하였다.

“문화와 관련된 단어가 보여서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 그중에서 는 흥미도가 올라가는 게 컸던 것 같아요. 뒤에 문장이 뭐가 나올지 궁금해졌어요.” (H1)

중국어 독해에 대한 심리적 장벽과 거리감이 완화되었다는 반응도 확인되었다. 학습자들은 반복적인 한자 및 구조 파악을 통해 독해를 보다 접근 가능한 활동으로 인식하였으며, 일부 참여자에게서는 중국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

도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수업 후에 관련 문화 내용이나 단어를 스스로 찾아보는 등 자발적인 탐색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중국어 독해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자주 나오는 한자들 같은 것만 외우면 문장 독해할 때도 좀 쉽게 생각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거리감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M2)
 “평소에는 중국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어서 검색 같은 것도 안 해봤는데, 중국어 수업 끝나면 중국 행운의 숫자 같은 걸 찾아보기도 했어요.” (L1)

또 중국어 심화 읽기나 자격증 시험 대비 등 후속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의향도 나타났다.

“중국어로 된 원어 소설 같은 걸 좀 더 읽어보고 싶어요.” (H2)
 “이번 수업이 도움이 돼서 사실 이번에 종강하고 진짜 HSK 한번 보려고요.” (M3)

뿐만 아니라 중국어, 문화 학습, AI 활용을 각각 분리된 활동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학습 과정으로 인식하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단 중국어가 제일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뭔가 연결된 느낌이라서, AI 기반으로 모든 게 같이 공부해 되면서 다 같이 성장한 것 같아요.” (M3)

이러한 변화 양상은 특정 성취 수준에 한정되지 않았다. 상위권 참여자에게서는 독해 흥미와 원문 읽기에 대한 관심이, 중위권 참여자에게서는 독해에 대한 거리감 감소와 HSK 응시 계획이, 하위권 참여자에게서는 중국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자발적인 정보 탐색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중국어 독해에 대한 심리적 장벽 완화는 문화적 유대감 및 AI 활용 효능감과 결합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중국어 및 중국 문화 학습을 건인하는 후속 학습 동기로 전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AI 활용을 위한 사전 안내와 교수자 지원 요구

학습자들은 AI 기반 독해 수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프롬프트 작성에 대한 사전 안내와 연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수업 초반에 프롬프트 작성법 등에 관한 유튜브 자료를 공유하며 자기주도적 학습을 안내하였으나, 학습자들은 이를 부족하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표와 같이 범위가 큰 과제를 바로 수행하기보다, 간단한 예문 생성 등을 통해 질문을 구성하는 방법을 먼저 익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프롬프트 작성이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과제 수행 전에 구체적인 안내와 연습이 필요한 학습 내용으로 인식되었음을 시사한다.

“초반에 발표 준비하면서 프롬프트에 조금 어려움을 겪어서, 작성 방법을 좀 더 미리 배우고 다 같이 연습해 본 다음에 발표를 준비하면 좀 더 정확하고 깊은 내용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M1)

“예문 만들어 오기 같은 걸 하면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짜야 할지 더 자세하게 감이 잡힐 것 같아요. 이번에 발표를 준비할 때는 큰 틀부터 해야 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프롬프트를 먼저 제시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왔어요.” (M1)

수업 중 생성형 AI를 직접 활용하는 활동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 또한 나타났다. 교수자나 동료 학생의 AI 활용 결과나 수업 전 채팅 기록을 관찰하는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수업 중에 AI의 응답이 생성되고 수정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기를 희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수업하는 중에 뭔가 더 챗GPT랑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교수자가 보여준 채팅 기록은) 과거에 해오신 걸 그냥 보는 느낌이었어요.” (M3)

한편 초급 학습자가 AI로 생성된 중국어 자료의 정확성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수업과 같이 교수자와 학습자가 역할을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도 확인되었다. M2는 학습자가 AI 활용에 직접 참여할 필요성을 인정하

먼서도, 언어적 판단이 필요한 예문 생성과 검토 과정에서는 교수자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중국어 잘 모르는 사람이 AI만 돌려서는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양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라면 학생이랑 교수님이 반반 정도로 예문을 준비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M2)

AI를 활용한 자료 제공과 별개로, 교수자가 직접 지문을 읽어주는 언어적 피드백에 대한 요구도 확인되었다. 수업 초반에는 교수자를 따라 지문을 읽는 활동을 시도했으나, 학습자들의 소극적인 참여와 독해 수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AI 음성으로 문장을 끊어 듣는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기계적인 AI 음성을 듣는 것보다 교수자가 먼저 읽고 이를 따라 읽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AI가 편리한 학습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교수자의 직접적인 가이드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즉, 학습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AI 활용과 독해 감각을 활성화하는 교수자의 역할이 상호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과파고나 기계적인 것들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교수님이 끊어서 읽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읽으시는 걸 듣고 같이 읽다 보면, 이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감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H2)

결론적으로 학습자들은 프롬프트 작성의 사전 연습과 수업 내 실시간 AI 활용 기회의 확대를 요구하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언어적 오류 검토나 소리 내어 읽기와 같이 직관적인 언어 감각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교수자의 직접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학 교양 초급 중국어 독해 수업에서 교수자 비계, 학습자 주도 탐구, 비판적 정보 검증 활동이 지닌 교육적 의미를 학습자의 경험을 통해 질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성형 AI를 매개로 한 교수자의 사전 비계와 학습자의 자율적 탐구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초급 학습자의 언어 및 내용 스키마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교수자가 검토·조정한 맞춤형 예문과 문법 자료는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낮추어 언어 스키마 형성의 토대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지문 연계 문화 배경지식을 주도적으로 탐색하며 내용 스키마를 확장하였다. 이는 생성형 AI가 교수자 중심의 비계와 학습자 주도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생성형 AI 기반 문화 탐구는 프롬프트 조정, 정보 선별, 동료 학습, 비판적 검증이 결합된 과정이었다. 학습자들은 발표 목적에 맞춰 질문 조건을 구체화하고, 동료의 프롬프트와 다양한 AI 도구를 관찰하며 활용 전략을 확장하였다. 또한 부정확한 정보와 부적절한 출처를 직접 경험하면서 AI 산출물을 검토가 필요한 정보로 인식하였고, 교차 검증을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필수 절차로 인식하였다.

셋째, 생성형 AI는 그 유용성과 별개로 초급 단계의 언어적 한계를 보완하는 교수자의 직접적인 지도 역할을 대체하기 어려웠다. 학습자들은 중국어 표현의 정확성과 자연스러움을 스스로 판단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교수자가 검증한 자료를 더욱 신뢰하였다. 특히 교수자의 지문 끊어 읽기 및 즉각적인 피드백 등은 AI의 기계적 음성이나 문자 자료가 제공하지 못하는 독해 감각을 활성화하는 교수자 고유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넷째, AI 활용과 문화 탐구의 결합은 중국어 독해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완화하여 능동적인 후속 학습 동기를 유발하였다. 또 이는 수업 중에 AI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로도 이어졌다. 학습자들은 수업 후 심화 원문 읽기,

HSK 응시, 자발적 문화 탐색 등의 발전적 학습 의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긍정적 경험은 제시된 AI 자료를 단순히 관찰하는 것을 넘어, 프롬프트 사전 연습과 수업 중 실시간 AI 직접 활용 기회의 확대를 요구하는 등 발전적인 태도로 이어졌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교수·학습 설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학습 초기에는 질문의 목적과 조건을 구체화하는 프롬프트 구성 방식을 익히고, AI 산출물을 교재나 웹 자료와 대조하는 검증 연습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수자 중심의 자료 제공을 넘어 학습자가 자신의 요구에 맞게 정보를 주도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 내 AI 직접 활용 기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AI를 활용한 예문과 문화 정보가 어휘·문법의 이해에 머물지 않고 실제 독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AI 활용 보충 자료를 지문 해석과 의미 추론 활동에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 넷째, 초급 학습자의 언어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AI 활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중국어 표현의 정확성에 대한 점검 및 교수자의 지문 끊어 읽기와 함께 읽기 등 직접적인 대면 상호작용 지도를 유기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실제 중국어 수업에서 초급 학습자가 경험한 스키마 활성화, 주도적 탐구, 정보 검증, 인식 변화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술의 기능적 활용 제시를 넘어 교수자 지원과 학습자 활동의 유기적 결합 양상을 학습자 관점에서 고찰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다만 본 연구는 특정 대학의 교양 수업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학기 말에 실시한 1회의 면담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참여자의 회고적 기억에 의존하였으며, 자기보고식 진술만으로 실제 중국어 독해 능력이나 AI 리터러시의 향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실제 독해 성취도와 AI 리터러시의 변화를 객관적인 평가 도구를 기반으로 다각도로 검증할 계획이다. 본 연구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학 중국어 수업의 교수·학습 설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 고권태, 「맞춤형 중국어학습을 위한 ICT 활용방안 설계 및 개발연구 : 챗봇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22.
- 권아린, 「ChatGPT 중국어문학 국내 연구 동향과 중국어 말하기 수업 활용 배경」, 『中國文學研究』 96집, 2024.
- 김선아, 「AI 활용 新HSK6급 쓰기 교육을 위한 프롬프트 설계 一考」, 『한중언어문화연구』 제77집, 2025.
- 이서이·한용수, 「중국어 교육에서의 AI 기반 수준별 맞춤형 교육 연구 - HSK 교수·학습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78집, 2023.
- 이아형, 「챗 GPT의 번역 수업 활용 방안 고찰 - 한중과학기술번역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85집, 2023.
- 이은선·진은진,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의 AI 리터러시 교육 수용 가능성 및 한계」, 『교양학연구』 35집, 2026.
- 이지원,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어 교육 분야의 연구 논문 동향 분석」, 『아시아문화연구』 64집, 2024.
- 임연정, 「스키마 이론 및 생성형 AI 기반 초급 중국어 독해 수업 설계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158집, 2026.
- 조은경·진화진, 「중국어 학습에서의 챗GPT 활용 가능성 탐색 - 기초중국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지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147집, 2024.
- 진준화, 「중국어 문법 연구에 있어 ‘생성형 AI 언어 모델 서비스: ChatGP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중국과 중국학』 50집, 2023.
- 최숙영, 「생성형 AI 시대의 미래 인재를 위한 핵심역량 프레임워크와 교육 방안」,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7권 9호, 2024.
- 최진실, 「생성형 AI를 활용한 한영번역 자기주도 학습과 학습자 인식: 학부생 스터디를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23권 1호, 2025.
- 戴雪梅, 「图式理论在对外汉语阅读教学中的应用」, 『汉语学习』 第2期, 2003.

- 王辉, 「图式理论启发下的对外汉语阅读教学策略」, 『汉语学习』第2期, 2004.
- Baidoo-Anu, D., & Owusu Ansah, L., Education in the era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Understanding the potential benefits of ChatGPT in promoting teaching and learning, *Journal of AI*, 7(1), 52-62, 2023.
- Braun, V., & Clarke, V.,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2006.
- Carrell, P. L., & Eisterhold, J. C., Schema theory and ESL reading pedagogy, *TESOL Quarterly*, 17(4), 553-573, 1983.
- Eskey, D. E., Holding in the bottom: An interactive approach to the language problems of second language readers, In P. L. Carrell, J. Devine, & D. E. Eskey (Eds.), *Interac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reading*, pp. 93-1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Long, D., & Magerko, B., What is AI literacy? Competencies and design considerations, *Proceedings of the 2020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 1-16,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2020.
- Rumelhart, D. E., Schemata: The building blocks of cognition, In R. J. Spiro, B. C. Bruce, & W. F. Brewer (Eds.), *Theoretical issues in reading comprehension: Perspectives from cognitive psychology, linguistic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ducation*, pp. 33-58,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0.
- Wood, D., Bruner, J. S., & Ross, G., The role of tutoring in problem solving,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7(2), 89-100, 1976.

Abstract

Learner Experiences and Pedagogical Significance in a Generative AI-Based Beginner-Level Chinese Reading Course at a University

— A Qualitative Study

Lim, Yeon Jung

This study aimed to examine learner experiences and their pedagogical significance in a generative AI-based beginner Chinese reading course within a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program.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even student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The findings showed that instructor-reviewed AI example sentences and grammar materials reduced learners' linguistic burden and supported the development of linguistic schemata. Furthermore, learners' cultural inquiry and presentation activities activated their content schemata, while prompt refinement and peer sharing broadened their strategies for using AI. Encountering AI-generated errors, learners recognized the need for source verification and cross-checking, and perceived instructor support as necessary for evaluating the accuracy of Chinese expressions. These learning experiences reduced the burden of Chinese reading and increased learners' interest in further study. Overall, the findings suggest that generative AI-supported instruction should seamlessly integrate instructor scaffolding, learner-led inquiry, and information verification.

Key words : Generative AI, Beginner-level Chinese reading, Schema, Instructor scaffolding, Learner-led inquiry, AI literacy

투 고 일 : 2026. 7. 10. / 심 사 일 : 2026. 7. 15. ~ 2026. 8. 15. / 게재확정일 : 2026. 8. 20.
